

# 호스피스<sup>는</sup> 인간 존엄성 회복 운동이며 사랑의 실천 운동

김혜자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고귀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위치에서 호스피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며 또다시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호스피스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돌봄에서 출발하였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탕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교회가 선포한 대회년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의 해, 참회와 용서의 해, 화해와 해방의 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생활속의 복음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하므로써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도록 노력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가치로서 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생명을 주관하시

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한 "아동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 교구별 호스피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교구별로 몇몇 수도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호스피스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어 호스피스 철학과 목적에 따라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셋째, 호스피스 제도화 마련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기환자를 돌보는 문제는 이제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위기의 순간인 죽음 앞에서 기본적인 생존권리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의 체계화입니다.

현재 각 교구,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호스피스 교육을 내용이나 질적으로 체계화

시킴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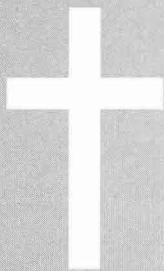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

“호스피스는 인간 존엄성 회복 운동이며 곧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의 사랑의 분발을 기원합니다.

21세기에는 호스피스의 고귀한 가치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열정이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리라 희망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뵈오리이까?

(시편 42:1~2)